

박우량 군수 “가지 않는 길 개척...신안 정체성 확립”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9일 제32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했다. 또 신안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술인 노력과 성과 등을 소개했다. <신안군 제공>

7천13억 규모 내년 예산안 군의회 제출...“중복사업 삭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색채 마케팅 등 성과 소개

박우량 신안군수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며 신안군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를 소개했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32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우량 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 박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안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청년 어선 임대 사업 ▲버스 완전공영제 ▲과플심 색채마케팅 등 혁신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성과를 전했다. 또한 전국의 여러 기관과 다른 지자체들이 신안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올 만큼 신안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소회를 밝혔다. 정부가 매년 수십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네 번째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 지난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신안 지역 인구가 179명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의 마중물로 삼고, 청년 어선 10척 임대, 100kg 양식 육성, 김양식 신규 면허 380ha 확대, 압해읍 농공단지 약 33만㎡ (10만평) 조성 등 청년 산업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 군수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선도 ▲신재생에너지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 ▲농어촌 주민이 잘사는 행복한 환경 조성 ▲관광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생태·

인문학의 성지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 실현 ▲가고 싶은 때 갈 수 있는 편리한 신안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보호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7천13억원 (일반회계 6천644억원, 특별회계 369억원)을 편성하고 군 의회에 제출했다. 박우량 군수는 “희망이 쏠리는 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효과가 낮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안=양홍기자

영광군의회, 수능일 제주 의정연수 ‘입살’

학생 이동·시험 편의 등 행정력 총동원 시기 부적절 질타 의회 관계자 “읍·면민의날 행사로 연기...추진 불가피”

영광군의회가 2025년도 대입 수능일을 포함해 제주도 의정연수를 떠나 지역민의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20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간 제주도로 단체 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는 2천900만원이 투입돼 의정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조례 제·개정 및 지방자치 전반, 분산에너지법 교육과 4대

폭력예방·장애인 인권·아동학대예방 교육, e-모빌리티 현장 선진지 견학, 보름맞춤농장, 예산안 심사 및 정책지원관 역할 교육 등 선진지 견학이다. 올해 수능은 지난 14일 치러진 가운데 영광지역에서 수능에 응시한 학생은 총 318명으로 2개교에서 수능 시험이 진행됐다. 수능은 매년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 학생 이동, 보건 안전 관리, 시험 편의 등 행정력이 총동원되고 응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영광군의회는 이번 연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영광교육지원청이 수능 당일 부산·경주도 2박3일 일정의 연수를 추진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연수를 취소하고 복귀하는 사태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강행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한 영광 공민은 “군의회가 정책 개발을 위해 연수를 떠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수능일에 맞춰 연수를 강행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군의회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중요한 일정에 배려 없이 강행한 이 결정은 신뢰를 저버린 행보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 학부모는 “수능일에 군의원들이 연수를 떠나는 것은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며 “수험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날, 지역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감마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1년에 수능일 하루만큼은 온 국민이 함께 아이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한 마음으로 지지하는 의미 있는 날 아니냐”며 “꼭 수능일에 추진해야 할 만큼 중요한 연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수능과 무관하기에 연수 일정을 검토할 때 수능일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읍·면민의 날 행사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연수 일정이 미뤄졌고 오는 25일부터는 정례회에 돌입해 이번 연수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영암군먹거리위원회,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추진 첫발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영암군먹거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추진 민간 거버넌스로 첫발을 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지난해 마련된 영암군의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은 영암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관련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이다.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해 영암군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기획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의 위촉을 받은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먹거리위원회는 영암군의 전략을 토대로 로컬푸드에서 급식까지 지역사회 먹거리 정책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될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운영에 지역

아동학대 예방 ‘나주품앗이, 도담도담’ 실시

나주시, 올바른 양육 문화 확산
나주시는 20일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나주품앗이, 도담도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나주경찰서, 나주교육지원청,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 나주지역 아동센터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진행됐다.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 양육을 통한 올바른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나주초등학교와 금천중학교 정문 앞에서 관계기관 소속 80여명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알렸다. 나주시는 긍정 양육 문화 조성을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선정작품 12점을 오는 29일까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와 빛가람동 스마트미디어



어스태이션에 전시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캠페인과 그림 공모전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긍정 양육 문

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준환기자

국제와이즈맨 목포비파클럽, 죽교동에 사랑의 연탄나눔

20여명 참여...연탄 600장 전달
국제와이즈맨 목포비파클럽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목포비파클럽은 목포시 죽교동에 거주하는 2세대에 연탄 600장(각 300장씩)을 지원하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봉사활동에는 클럽 회원 20여명이 참

여해 직접 연탄을 나르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국제와이즈맨 목포비파클럽은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장재준 국제와이즈맨 목포비파클럽 회장은 “연탄을 나르며 피어난 온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일섭 죽교동장은 “연말을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연탄 봉사를 해주 감사하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회원 70여명으로 구성된 국제와이즈맨 목포비파클럽은 지금까지 세대당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10여 차례나 진행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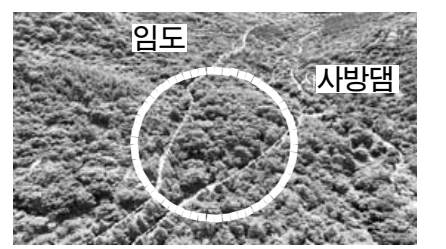


해남 옥천면 무궁화 동산 ‘나라꽃 무궁화 명소’ 선정

해남군 옥천면의 ‘옥천 무궁화 동산’이 산림청이 주최한 대한민국 제1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나라꽃 무궁화 명소로 선정됐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옥천 무궁화 동산은 지강 양한목 선생의 생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3위 장려상에 선정돼 산림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림청은 매년 무궁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알리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명소를 선정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생육 환경의 적합성, 사후관리 적절성, 규모성, 접근성, 명소화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17개 기관, 28개소 중 상위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옥천 무궁화동산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지강 양한목 선생의 생가 일원에 지난 2018년 조성됐다. 6월부터 9월까지 쉬지 않고 꽃이 피었다 지는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담은 무궁화 198종, 1천450루가 식재돼 독립운동 유적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남=박필용기자

강진 ‘주작산 산림레포츠’ 관광 인프라 구축

58억 투입...집와이어 활용 모험시설 등 2027년 완공 목표
강진군이 주작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작산 일대에 다양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사업 예정 위치 사진)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총 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작산은 이미 수려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강진의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성될 주요 시설로는 집와이어를 활용한 모험체험 시설, 자연과 어우러진 등산로, 산림 체험 공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산림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특히 이번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주작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을 통해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